



#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Diaspora in Korean History

고려대학교 K히스토리학술확산연구단

THE RESEARCH CENTER FOR FOSTERING K-HISTORY



## 강좌 소개 Introducing the Course

### 1. 수업 내용 및 목표 (Course Objectives)

1. 디아스포라(diaspora)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meaning of 'diaspora'.
2. 한국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례를 탐색하고, 그 보편·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Students can explore the cases of diaspora in Korean history, and explain its universality or/and specificity.
3. 디아스포라 학습을 기반으로, 현대 이주민 사회·집단의 차별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Based on studies of diaspora, students may seek solution for discrimination issues on migrated society and groups in contemporary times.

### 2. 강좌 운영(Course Plan)

주차 Week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차시 Session	차시명 Session Title
1	이주와 국제입양 Migra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s
2	한국해외입양의 시작: 혼혈아동과 냉전 The Beginning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Mixed-Blood Children and the Cold War
3	압축적 근대화의 그늘: 기아와 미혼모 The Shadow of Heavy Modernization: Abandoned Children and Single Mothers
4	초국적 한인입양인 공동체 형성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Korean Adoption Community
5	귀환 입양인과 한국사회 Returned Adoptees and Korean Society
6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서 국제입양 International Adoption as Transnationalism

# 강의





10주차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1차시	이주와 국제입양

열 번째 이야기.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이번 주는 국제 입양한인 디아스포라를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주와 국제 입양을 알아보고 혼혈아동과 냉전이라는 주제로 한국 해외입양의 시작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기아와 미혼모에 관해 살펴보고 한인 입양인의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과 귀환 입양인과 그들을 대하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차시에서는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서 국제 입양을 이야기 하며 학습을 마칩니다.

1차시. 이주와 국제 입양.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주로서 국제 입양이 가진 특수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입양의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세계 국제 입양의 역사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 입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여기와 같이 백인 부부가 동양이나 흑인 아동을 입양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입양은 일반적으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가족을 형성하는 진보적인 행위이자 세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선한 행위로 재현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마지막 강의에서는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와 초국가적 한인 입양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6차시에 거쳐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여기서 본 해외 입양의 이미지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입양에 대한 논문을 읽고 국제 입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학습전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고르세요. 국제 입양은 비서구 국가에서 서구 국가로만 이루어져왔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국제 입양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 비서구지역에서 서구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주민이 증가했고 분쟁지역의 난민이 급증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이주연구의 범위와 양은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주연구에서 국제 입양을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인구학자 Richard Weil은 국제 입양을 조용한 이민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입양이 이주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은 국제 입양이 이주의 매우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대부분의 이주는 성인이 단독으로 이동을 하거나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제 입양의 경우 아동, 특히 영유아가 단독으로 이주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입양의 경우에는 이주민인 입양아동이 이주가 된 직후에 정착국의 국민인 양부모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입양을 통해 이주민인 아동이 정착국의 시민권 취득을 어려움 없이 매우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다른 이주민들처럼 이주민 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착국의 주류사회에 편입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국제 입양은 이주로 인식이 되기 보다는 가족 형성의 한 방식으로 이해가 되었고, 이 때문에 이주연구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단적인 예로 최근 미국에서 양부모가 입양아동의 미국 시민권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성인이 된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만 보더라도 국제 입양은 엄연히 아동을 보내는 국가와 아동을 받는 국가의 이민법,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이주의 한 형태이며 단순히 조용한 이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입양은 다른 이주형태의 비해서 백년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 입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와 혼란 속에 부모를 잃은 유럽의 아동을 미국인들이 입양을 하면서 국제 입양이 시작되었는데요. 1940년대와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후 입양을 보내는 국가들이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입양을 받는 수용국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지역인 유럽, 호주, 캐나다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국제 입양이 크게 줄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부터 오늘까지 약 1백만 여명의 아동이 국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50년대에 미국의 샌디에이고로 입양이 된 그리스 아동을 찍은 사진입니다.

국제 입양에서 한국은 아동을 보내는 송출국가로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비백인 아동이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는, 인종을 가로지르는 입양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록상 공식적으로 1953년 해외입양이 처음 시작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입양이 되고 있는데요. 단일송출국가로서는 가장 긴 기간인 70년 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치를 입양국가별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약 20여 만 명의 한국 아동이 10여 개국의 서구 국가들로 입양이 되었고 한국을 통해 국제 입양은 글로벌한 현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10주차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2차시	한국 해외입양의 시작: 혼혈아동과 냉전

## 2차시. 한국 해외입양의 시작 : 혼혈아동과 냉전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국 해외입양의 시작을 냉전시대 국제질서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혈 아동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정치적 문제로 인식된 이유를 두 국가의 새로운 국민국가 정체성 형성과 관련지어 분석,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해외입양이 한국에서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혈 아동의 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혈 아동이 한국에서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는 냉전이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한반도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요.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이 한반도에 유입이 되면서 미군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혼혈 아동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혼혈아동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 데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유엔군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전시 혼란 속에서 자행되었던 성폭력의 결과로 많은 혼혈 아동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혼혈 아동이 성폭력의 결과로만 태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초대 한국 정부였던 이승만 정권은 전시기간동안 유엔군들을 위한 위안소 설치를 지시함으로써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미군의 한국 주둔이 반영구화되면서 미군기지 주변에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진이 기지촌에서 일하던 여성과 미군을 찍은 사진인데요. 1950년대 한국에는 약 18개의 기지촌이 존재했고 6만 여 명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54년부터 한국 정부가 전국의 혼혈아동 실태를 파악한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표인데요. 이 통계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지방의 말단 공무원들이 관할하는 각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혼혈 아동의 유무를 물어보거나 숫자를 세어 파악한 것으로 이게 실제 혼혈아동 수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 혼혈 아동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혼혈아동의 전국적인 분포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서울, 경기, 경남지역에 집중되어서 혼혈 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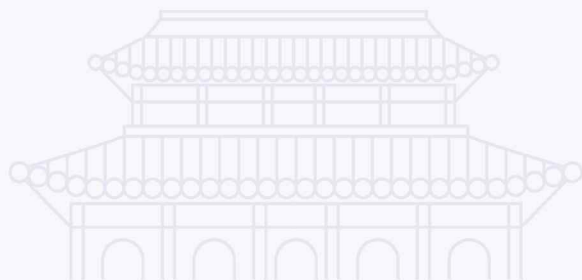
또 여기도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혼혈 아동이 기지촌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혼혈아동을 성매매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지촌이 없던 지역에서도 혼혈 아동이 태어났습니다. 다음의 두 논문을 읽고 혼혈 아동이 왜 한국과 미국에서 '문제적'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골라 보세요. 한국에서 혼혈아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냉전과 관련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혼혈 아동의 등장과 냉전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혼혈 아동의 삶은 매우 어려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혼혈 아동의 아버지인 미군은 아동을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굉장히 짧은 복무기간을 마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로부터도 버려진 경우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었지요. 어머니나 외가에서 아동을 키우더라도 당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었던 '튀기'와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혼혈 아동은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차별과 배제를 겪어 당시 혼혈 아동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한국 정부는 전후 혼란 상황 속에서도 1954년부터 매년 혼혈아동의 수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가 혼혈 아동을 단순히 사회복지 문제로 본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혼혈 아동이 어떤 이유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요. 단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48년 남쪽의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남한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고요.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남한의 국민을 강력히 결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승만 정권은 한국인은 하나의 핏줄임을 강조하였는데 다시 말해 한국 국민을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단일민족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이를 주요 통치이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일민주의(一民主義)로 일원화가 되었는데요, 한반도에서 인종주의적이고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등장의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경우는 추가 문헌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혈 아동의 경우는 외모가 이질적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추구하였던 순혈주의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균열을 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혼혈 아동의 어머니는 모두 성매매 여성일 것이라는 인식이 당시 팽배했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혼혈 아동을 더 문제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내외에서 자국이 탈식민, 자주 국가 건설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홍보하고자 했는데 실제 현실은 이와 매우 다르게 국가 건설을 위해 전 분야 - 군사,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미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미국 사이의 국가간의 권력 관계는 한국 여성의 미군 남성에 종속으로 그대로 재현이 되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혼혈 아들은 그 존재만으로 남한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혼혈아동 등장 초기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증가하는 혼혈 아들은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 배경에도 냉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이전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냉전 하의 세계질서가 동서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신생국들을 자유 민주주의 진영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유럽 제국주의와는 다른 비제국주의적이고 자애로운 세계 강국으로 스스로를 재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미군들에 의해 아시아 국가들에서 혼혈 아동이 태어났고 버려지는 상황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었습니다. 혼혈아동은 미국이 다른 국가에 무력 간섭을 하는 상황, 즉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였고요,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혼혈 아동의 굉장히 비참한 삶이 공산주의 국가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고, 혼혈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로 여겼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혼혈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던 중에 당시 미국의 난민법 하에 한국의 혼혈아동이 미국 시민에게 입양이 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1954년 한국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 최초의 해외입양기관인 한국양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해외입양이 숫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인 해리 홀트(Harry Holt) 씨의 영향이 컸는데요, 당신 오레곤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홀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홀트는 우연히 한국 혼혈 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크게 놀라서 한국에 방문해서 혼혈아동 8명을 입양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은 홀트씨 부부가 입양 아동 8명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트씨의 입양은 미국 대중매체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요 이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한국 혼혈 아동을 입양하고자 했고, 홀트씨는 1956년에 한국으로 내한하여 홀트씨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서 많은 미국의 민간 원조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회복지





지나 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신생 입양기관들과 함께 미국의 난민법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혼혈 아동을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기지촌과 고아원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혼혈 아동을 찾아내었고 이들을 양부모와 결연하고 입양과 이민 수속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고, 모든 일을 전담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미국인들이 혼혈아동 입양을 원하는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이 미국인이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직접 답변을 하고 적절한 아동을 찾아줌으로서 최대한 많은 혼혈 아동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10주차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3차시	압축적 근대화의 그늘: 기아와 미혼모

### 3차시. 압축적 근대화의 그늘 : 기아(棄兒)와 미혼모

이번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한국에서 해외입양의 지속 및 대상아동의 변화를 한국의 가부장적, 압축적 근대화와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전후시기 이후 한국 입양의 지속과 확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혼혈아동을 집중적 대상으로 하는 해외입양이 진행되어서 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입양이 가능한 어린 나이의 혼혈 아동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 때에 중단이 되지 않고요.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에서 매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치를 그래프화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60년대 초중반에 해외 입양이 약간 정체가 되었다가 60년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해서 70년대에 계속 증가를 하고 70년대 후반에 약간 감소가 되었다가 다시 80년대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아동인 6만 5천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냐면요. 한국에서 출생되는 아동의 100명 중 1명꼴로 해외입양이 되었고요. 이는 다른 아동 송출국에 비해서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후 90년대 들어서 입양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00여명의 아동이 매해 해외로 입양이 되었고요. 최근 10년 간 수치가 더 줄어들어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아동이 매년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전후복구 시기가 지난 이후에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 해외입양이 지속되었는지를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개의 글을 읽고 한국에서 해외입양대상 아동이 어떻게 변했고 이것이 한국 근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해외입양이 줄어들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지속되었던 해외입양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외입양이 한국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입양대상 아동이 시기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10년 단위로 해외입양이 된 아동의 입양 배경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선 1960년대에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기에 입양된 아동은 대부분 기아(棄兒), 즉 유기된 아동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지속된 중요한

사회적 배경에는 아동 유기 문제가 있었고요. 이 아동들이 해외입양 아동 대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시기부터 한국 해외 입양은 더 이상 혼혈 아동 중심이 아니라 비혼혈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1960년부터 69년 사이에 매년 전국에서 발생한 기아 수치를 정리한 표인데요.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매년 6천 600여명의 아동,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매일 약 20명에 달하는 아동이 기차역이나 길가, 시장 등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수치는 60년대 후반이 되어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아동 유기는 매우 복잡한 사회문제로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통계자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유추가 가능한데요. 이 시기에 대부분의 기아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기아 문제와 당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도농이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과 고리채로 농가의 경제가 매우 파탄해졌기 때문입니다. 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산업화가 추진되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에 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저임금 정책 하에서 노동자들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도시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거대한 빈민가가 한강 지역 등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 시기 사회복지정책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을 표명했지만 실제 정책을 살펴보면 가족에게 모든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 정부는 개인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중의 성인, 특히 노동력이 있는 성인이 있는 경우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아동에게 만약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한 당시 정부나 민간 복지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의 빈곤 가족이 위기상황에서 아동의 보육이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아동을 공공장소에 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구의 아동복지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사회 사업가들의 주도로 아동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아동중심주의 원칙에 근거에서 해외입양 대상의 아동이 혼혈 아동에서 기아로 1960년대 후반에 변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해외 입양 대상 아동이 크게 다시 한번 변하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 1970년대에 들어서 미혼모, 미혼 여성의 아동이 해외입양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한 뒤에 1980년대 이후로는 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경제가 급격히 발전된 이후에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외 입양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사진은 1973년 그리고 1974년의 신문 기사고요. 당시 70년대 초반에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미디어에 등장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가시화된 것은 70년대였고, 그 직접적인 사회적 배경에는 산업화

가 있었습니다. 아까 간단히 언급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서 1961년 집권한 뒤에 경제개발을 급속하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섬유, 의류, 식료품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추진하였고, 이 때문에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한국에 총 18만 명의 여성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는 20년 만에 140만 명으로 7배 이상 늘어났고요. 70년대 중반에는 산업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노동자는 대부분 15세~25세 사이의 젊은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농촌이나 빈곤 가정에서 자식이 여럿 있을 경우 제한된 교육의 기회는 대부분 아들에게 주어졌고 딸의 경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마친 뒤에 곧바로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 대구와 같은 도시로 나가서 생계를 돕기 위해서 공장과 서비스직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도시에서 노동 활동을 하였던 미혼 여성의 임신이 증가하면서 1970년대 초에 사회 사업가들에 의해서 미혼모의 존재가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 크게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미혼 여성의 임신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의 성(性)은 결혼 하에서만 허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을 재생산하는 제한적인 시각으로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성욕, 성생활, 임신, 출산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미혼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굉장한 수치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미혼여성이 양육을 하기 위한 공적 생계 지원이나 보육 지원은 거의 부재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혼여성이 혼자 일을 하면서 아동을 키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여성이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고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도 미혼 여성의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미혼모가 1980년대~90년대에 존재하는데요. 지속되는 이런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배제 속에 한국 미혼모의 경우 70% 이상의 여성이 아동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기아와 미혼모 아동이 있었고 이들이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입양은 성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아동을 원하는 외국의 가정이 있어야만 해외 입양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한국 해외입양 그래프인데요. 한국의 해외입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1960년대 말입니다. 이 시기에 입양이 급격히 증가했던 이유는 한국 전쟁 직후부터 혼혈 아동을 입양했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10여개 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아동을 본격적으로 입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해외입양의 지속과 확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국내상황 뿐만 아니라 입양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한국 입양을 시작하였던 곳은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인데요. 이들 국가는 1960년대 공통적인 사회현상을 겪게 되는 데 이는 자국 내에 새로운 가정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要保護) 아동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 이후에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확장이 되면서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혼모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미혼모는 서구에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여성의 권리가 향상이 되고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양육을 돕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아동을 직접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서구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 입양대상 아동이 크게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들에서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불임부부가 늘어간 것도 있지만 당시 서구 백인 중산층 사이에 부모되는 것이 단순히 재생산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국 내에 아동을 입양을 할 수 없던 많은 서구의 중산층 부부들이 해외에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을 찾았고, 한국이 중요한 해외 입양 송출국이 되었습니다.







10주차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4차시	초국적 한인입양인 공동체 형성

4차시. 초국적 한인입양인 공동체 형성.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주연구의 동화이론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을 비교 설명할 수 있고 한인 입양인의 생애와 초국적 공동체 형성의 의미를 동화이론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한인 입양인들이 정착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한입 입양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혹시 오늘 강의 주제인 국제입양 한인디아스포라가 다른 본 강좌의 주제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본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고려인, 재미한인, 재독한인 등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모두 정착한 국가나 지역을 기준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집단을 규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인의 경우 정착 국가인 미국,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개별국가 단위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10여 개가 넘는 정착국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입양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낸 집단정체성으로 이들은 각자 어느 특정 국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본인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국제입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이주, 성장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입양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했는지 이를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두 개의 글을 읽고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개념을 좀 정의해 보고요. 한인입양인 공동체 형성과정에 어떤 부분을 이 이론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차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고르세요. 트랜스내셔널리즘에서는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출생국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정착국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초국주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주민의 삶을 분석하는 개념이었던 동화(assimilation)이론을 우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화이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주민이 정착국에 도착을 하면 정착국의 언어가 서툴고 그곳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층계급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자본을 얻기 위해서 이주민들은 같은 지역 출신들이 모여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주민들은 정착국의 언어나 기술, 인맥을 쌓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생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고 동화이론은 말합니다. 이러한 동화



과정을 통해서 이주민들은 계급 상승을 경험하게 되고 정착국의 주류 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화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주민이 출생국가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주 국가의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주민의 정체성을 제로섬 게임으로 규정을 하고 출생국과 정착국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하며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주에 성공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1970년대~80년대 만하더라도 이러한 동화 이론이 이주민을 이해하는 주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이주민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개념인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이 이 시기에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에는 당시 교통과 인터넷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사람, 물자, 정보의 교류가 가속화되는 세계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주민의 삶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증가했고요, 이들은 기존의 동화 이론이 실제 이주민의 삶과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이론화하였습니다. 트랜스내셔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비정부기구나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주민의 삶이 동화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착국이나 출생국 둘 중 하나에, 국민국가의 틀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국과 출생국을 아우르는 초국가적인 영역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 경제 활동을 하는 동시에 출생국의 친척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것을 넘어 출생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 그리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와 관계를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것은요,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이주민을 하나의 국민국가의 틀에 가두는 것을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보고요, 이들이 정착국이나 출생국 두 곳 모두에 동시에 속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살펴본 동화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이론을 통해서 입양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해외입양인 삶의 다양성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보았듯이 현재 약 20여 만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들은 거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개가 넘는 국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입양인의 성장 경험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다양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입양인의 삶을 좀 바라보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겪는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의 경험을 입양인 공동체 형성과 연관을 시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구 국가에 입양된 한인 입양인들이 유색인종으로서 겪은 인종차별입니다. 1970년대에 덴마크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토마스 링에 씨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많은 한인입양인들은 자라면서 학교, 길거리, 직장 등과 같은 공적공간에서 인종차별을 빈번히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다른 비백

인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입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입양이 되었다는 이유로 특수한 성격의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강의 초반에 국제 입양의 경우, 아동이 이주하여서 바로 정착국 시민의 가정에 입양이 되기 때문에 국제 이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경우, 백인 양부모들은 동양인 입양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비백인 아동이 아니라 백인 아동인 것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성장 경험은 입양인들이 느끼는 피부색의 다름이라던가 아니면 이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양부모에게 표현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즉 다른 이주민의 아동과 다르게 입양인의 경우, 인종차별을 겪어도 그 일을 공유하거나 이를 이해해 줄 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한인 입양인들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출생국인 한국의 문화와 자신을 낳아준 친생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로 자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동화이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입양 아동을 주류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입양인 다수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입양인의 경험을 다소 도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한인 입양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소설, 시, 그림,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나온 작품을 찾아 볼 것을 추천합니다.

성인이 된 한인 입양인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인 입양인들의 자조모임이 등장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트랜스내셔널리즘과 관련을 시켜서 살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입양인 단체가 설립이 된 곳은 스웨덴이었습니다. 그 설립자인 마티아스 체더(Mattias Tjeder) 씨에 따르면 본인이 17살이 되었을 때 한국을 알고 싶어서 당시 스웨덴 한국 이주민이 제공하는 한국어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강의에서 한인 입양인 네 다섯 명을 거기서 만났고요. 이것이 마티아스 씨에게는 처음으로 다른 한인 입양인들과 교류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1986년 한인입양인협회를 만들었고요.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들이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많은 한인 입양인 자조 단체가 생기는데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설립에 한국에서 파견이 된 한인 목사가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시민사회에서 1990년대 초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인들과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입양인들을 중요한 한인으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입양인 자조 단체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굉장히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1995년에 최초로 유럽에 있는 한인입양인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그 컨퍼런스 팜플렛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 있던 입양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서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 시기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자조 단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들이 각 국가와 지역에서 형성된 입양인 자조 단체들의 로고입니다. 이 단체들은 한인 입양인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입양인들은 앞서 언급했던 인종차별이나 친생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다른 입양인들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겪고 있고 이를 표현할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요. 이런 특별한 경험의 근원에 국제입양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입양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한인 입양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한인 입양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정체성으로 입양인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과 해외여행의 보편화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입양인 단체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입양인들이 그 단체에 가입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입양 단체를 모아서 전세계에 있는 한인 입양인을 연결해주는 이메일 리스트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계의 국외 한인 입양인들의 소식과 정보가 공유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인 한인입양인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최초로 세계 한인 입양인 모임이 열렸고요. 이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었던 공동체 의식을 현실의 공간으로 실현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개별 자조 단체를 하나로 묶는 연합체인 ICAA라는 연합체가 2004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매 3년마다 전 세계 한인입양인을 위한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행사가 있었고, 이 행사에는 약 700여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10주차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5차시	귀환 입양인과 한국사회

5차시. 귀환 입양인과 한국사회.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한인 입양인들이 중요한 한인 디아스포라로 인식되는 과정이 한국 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관계 있음을 이해하며, 그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적용하여 귀환 입양인의 한국에서의 사회 변혁 활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해외입양 대상 아동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는 한인 입양인들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입양과 입양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져 왔는데요. 1991년 제작된 대중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은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입양인들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대중매체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한인 입양인들을 이산과 이주를 통해서 상처받은 피해자이자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했고요. 또한 입양인의 삶을 양부모와의 관계 혹은 친부모와의 재상봉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켜서 이해하였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90년대 한인 입양인들의 자조 단체가 설립되고 그리고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입양인들의 숫자도 크게 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사회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형성했고, 이는 위와 같은 입양인의 재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좀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 두개의 글을 읽고요, 입양인들의 한국에서 활동을 앞서 살펴본 트랜스내셔널리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본 학습에 앞서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인 입양인들의 귀환과 한국에서의 활동은 자신의 혈연과 뿌리를 찾기 위한 배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귀환 입양인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귀환 입양인들이 한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국제입양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입장을 취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가 혼혈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부계혈통 중심주의적 사고에 의거해서 아동을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행위로 해외 입양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가면요, 더 이상 입양인들은 혼혈 아동이 아니라 비혼혈 아동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로 한국의 아동이 입양되면서 이러한 논지는 힘을 잃게 되고요. 대신 해외 입양은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이 되었냐면요, 해외 입양의 기저에



는 입양을 보내는 국가인 송출국의 정부가 자국의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송출국이 무능하다는 인식은 특히 당시 분단체제 하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에게는 단순히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입양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한국에서 해외 입양은 두 번 크게 감소했는데 한 번은 1970년대 말 또 다른 한 번은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입양이 감소된 배경에는 1970년대 초에 북한 정권이 남한의 입양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초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는 냉전 양극체제가 완화된다는 데탕트 국면이었지만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이를 남북 정부 모두가 자국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오히려 경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정부는 남한정부가 치부로 여기는 해외 입양을 적극적으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소의 계기에는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과거 전쟁의 폐해에 허덕이는 후진국의 한국 이미지 대신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올림픽을 통해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진보적인 매체는 한국이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한국이 아동 수출국임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부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해외 입양을 감소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후반 내놓은 정책 두 개 모두가 동일했고 이는 해외 입양을 감소하는 대신에 국내 입양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이 대책이 미혼모나 빈곤가정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자체를 총체적으로 재정립하고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해외 입양이 아니라 국내 입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이 분리되는 조건에 대한 변혁을 꾀하지 않음으로써 요보호 아동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해외입양 축소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였고요. 오늘날까지 해외 입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입양인들이 자조단체 형성과 함께 한국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사회에는 입양인들이 이렇게 많은 수로 귀환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입양인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단체나 서비스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한국 정부는 한인 입양인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서 세계화를 국가발전의 중심 전략으로 채택을 하였고 그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부는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500여 만명의 재외 한국인을 끌어들이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여 만명의 해외 한인 입양인들이 재평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해 왔었는데요. 성인 입양인들의 귀환을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고아, 기아, 미혼모의 아동이 아니라 서구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라 굉장히 유능한 한인 인재로 재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들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로 재포섭을 하기 위해서 모국방문이라던가 한국 장기체류 자격 부여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인입양인이 이렇게 한국 정부로부터 중요한 존재로 인식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은 입양인의 관점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입양인들을 지원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귀환 초기부터 입양인들은 본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조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결과 1998년에 입양인 단체인 GOAL 한국어로는 해외입양인연대가 서울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입양인 같은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1990년대 한인 입양인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외국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년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OAL과 같은 단체와 그리고 개별 귀환 입양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회와 대중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요. 그 결과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한인 입양인이 재외동포로 포함이 되면서 이들이 장기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 단체의 웹사이트인데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고 판단되는 친생가족찾기, 심리상담, 한국어 수업 같은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조 단체 운동과 함께 해외입양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귀환 입양인 단체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사회변혁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활동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입양인의 정치활동 중에 귀환 입양인들은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특히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도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을 한 배경에 미혼모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부재가 있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운동을 벌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원가정 보호 원칙을 추진하지 않았음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미혼모들을 직접 만나서 입양인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미혼모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 인권단체와 연대를 해서 다양한 캠페인, 학술회의 등을 통해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환 입양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





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양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입양 기관이나 아동 보육시설에서 입양인들이 입양 서류를 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입양 서류 전체의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일부 공개된 서류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기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상에는 누락되어 있다던가 혹은 생년월일이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가 잘못 적힌 경우도 많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체성에도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입양인들은 입양 서류에 대한 접근을 '입양인의 알 권리'로 그리고 인권문제로 규정을 하고요.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서류상의 문제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해외 입양을 단순히 감추어야 할 역사가 아닌 직면해야 할 역사로 재규정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사진이고요. 이런 노력의 하나의 결실로 2012년에 입양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해외입양법이 제정된 게 1961년입니다. 법의 제정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입양인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한국 입양법 최초로 원가정 보호 원칙과 그리고 입양인의 입양 정보 접근권을 명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주차	국제 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6차시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서 국제입양

6차시.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서 국제입양.

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입양인의 조직화와 한국에서의 운동을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의 가장 처음 봤던 입양가정의 사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백인 부모가 유색 인종의 아동을 입양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인 입양인 중에 한국에서 사회참여 운동을 한 뒤에 입양국으로 재이주해서 입양관련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제 입양은 인종을 초월하고, 그리고 세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을 돕는 선한 행위로 규정하는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덴마크 한인 입양인 작가인 제인 진 카이슨의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The Andersons이라고 해서 '앤더슨 가족'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카이슨은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덴마크 미혼모 여성의 백인 아동을 입양한다고 설정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영상과 사진 작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기존의 입양아동과 양부모 사이에 인종 질서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복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이 비서구국에서 서구국가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굉장히 일방향적으로만 움직이는 현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그녀는 국제 입양이 서구 사회의 굉장히 부유한 개인들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고 이로 인해서 비서구 국가의 수많은 빈곤 가정, 그리고 미혼모 가정이 아동 양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입양국에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한인 입양인들은 국경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입양국의 사회 변혁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국가적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인 국민-비국민, 그리고 원주민-이주민, 출생국-정착국과 같은 이분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Kore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History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Diaspora in Korean History

# LECTURE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SESSION 1	Migra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s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This week, we are studying diaspora who are international adoptees. First, we will look at migra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s, and then look at the beginning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under the topics of mixed-race children and the Cold War. Next, we will look at the issues of orphans and single mothers and talk about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community of Korean adoptees, and about return adoptees and how Korean society is dealing with them. In the last session, we will finish by talking about international adoption as transnationalism.

Migra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s.

The learning goals for this session. By grasping the specificity of international adoption for migrants, you will explai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orea in the history of global international adoptions.

What image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international adoption? You'll probably think about this kind of image of a white couple adopting an Asian or black child. It has largely been reproduced as a progressive act of forming a family across races and borders, and a good act of providing families to children in difficult situations in the world. In today's last lecture on "Diaspora in Korea," we will cover the history of Korean overseas adoption and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Korean adoptee community through these six sessions. This will als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rethink your image of overseas adoptions. Try reading papers on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ink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doption.

This is a preliminary quiz. Read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between O and X. International adoption has been made from non-Western countries to Western countries only. The answer is X. So let's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international adoption.

Amid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trend, the number of migrants moving from



non-Western countries to Western ha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refugees in conflict areas has expand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two decades. Despite this expansion, migration studies have rarely dealt with international adoption. Seeing this phenomenon, the demographer Richard Weil compared international adoption to quiet immigration. The reason why international adoption was not considered a subject of migration research is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a very unique form of migration.

First of all, in most migrations it is common for adults to move alone or on a family basi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adoption is characterized by children, especially infants, moving alone.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doption, it is characterized by a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with the foster parents, who are citizens of the settlement country, immediately after the immigrant adoptee becomes a migrant. Through this legal adoption, immigrant children can acquire citizenship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difficulty. In other words,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mainstream society of the settlement country, not living as a group of migrants like other migrants do. For this reason, as we saw in the previous picture, international adoption was understood as a way of forming a family rather than being recognized as migration, and for the same reason, research on migration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it.

However, as a very clear example, there have been several rec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Korean adoptees who have become adults have been deported to Korea because their adoptive parents have not gone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U.S. citizenship for the adopted child. Just looking at these cases, it can be seen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a form of migration under the immigration laws and national laws of countries that send the children and the countries that receive the children, and it is difficult to see it merely as quiet immigration.

So international adoption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less than a hundred years compared to other forms of migration. After World War II, adoption between countries began in earnest.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doption began when Americans adopted European children who had lost their parents amid the ruins and chaos of the war. Until the 1940s and 50s, many Greek, German,



Italian, and Polish children were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adoption countries have expanded to Asia, South America, Eastern Europe, and Africa, and countries that are recipient for adoption have expanded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other western regions such as Europe, Australia, and Canada. International adoptio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2000s. Nevertheless, it is estimated that from the mid-20th century to today, about 1 million children have been internationally adopted. This is a picture of a Greek child who was adopted to San Diego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In international adoption, Korea has a very central position as a country that sends out children. This is because cross-ethnic adoption, in which non-white children are adopted into white families, began in earnest in Korea. Korea has officially become a country that sends out adoptees since the first overseas adoption began in 1953. As one country that sent out children for adoption for 70 years, it has the longest history and the largest number of children being adopted overseas. The table you see now shows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overseas from Korea by adoption country. About 200,000 Korean children have been adopted to more than 10 Wester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doption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thanks to Korea.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SESSION 2	The Beginning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Mixed-Blood Children and the Cold War

### The Beginning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Mixed-Blood Children and the Cold War

Through this session, you will explain the beginning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Cold War. In addition, the reason why mixed-race children were perceived as a political problem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analyzed and compared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a new national identity of the two countries

How did overseas adoption begin in Korea? The background of the beginning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s closely related to the emergence of mixed-race children,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here.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se mixed-race children in Korea was the Cold War. In 1945, when Japan lost World War II, the Korean Peninsula escaped colonial rule, but due to its geopolitical importance, it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Korea along the 38th parallel by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ok the South, at the same time, as the U.S. military entered the Korean Peninsula, mixed-race children started to be born between U.S. men and Korean women. The Korean War was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mixed-race childr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Korea. Large U.N. forces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nd many mixed-race children were born as a result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in wartime chaos.

But not all mixed-race children were born only as a result of sexual violence. The Yi Sŭngman(Syng-man Rhee) administration, the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officially acknowledged sex trafficking by ordering the establishment of brothels for U.N. troops during the war. After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became semi-permanent, and base villages were formed around the U.S. military base to provide prostitution and various services to the U.S. military. The picture you see here is a picture of a woman working in a base village and a U.S. soldi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about 18 base villages in Korea in the 1950s and 60,000 women made a living through prostitution.



The table you see now is a reconstruction of statistical data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llected about the status of mixed-race children across the country since 1954. You need to understand how these statistics were aggregated. Since at that time it was difficult to visit each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low-level officials and asking for or counting mixed-race children, this hardly corresponds to the actual number of mixed-race children. The actual number of mixed-race children is estimated to be much higher. However, it is important data in that shows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mixed-race children. As you can see, it is confirmed that mixed-race children resided here in Seoul, Kyōnggi and Kyōngnam because U.S. military bases and base villages were located in this area.

And one important thing to point out here is that many mixed-race children were born in base villages, but that doesn't mean that all mixed-race children are considered the result of sex trafficking. As you can see in the table now, mixed-race children were born even in areas where there was no base village. Please read the following two papers and think about why mixed-race children were perceived as 'problematic'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ad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between O and X. The strong appearance of mixed-race children in Korea is related to the Cold War. The answer is O. Let's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ergence of mixed-race children and the Cold War.

At that time, the life of mixed-race children was very difficult. In most cases, the U.S. soldiers, the father of mixed-race children, did not recognize them as their own children and returned home after a very short period of service in Korea. There were cases where they were abandoned by their mothers, and they grew up in facilities such as orphanages. Even if the mother or her family raised the child, mixed-race children suffered sever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from the community, as can be seen in terms such as "half-breed," which was very common at the time, so mixed-race children we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However, as shown in the previous table,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determine the number and location of mixed-race children every year since



1954 despite the postwar turmoil. This is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mixed-race children not only as a social welfare problem, but also as a political problem. In order to understand why mixed-race children were considered a political issue, it is necessary to briefly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As mentioned earlier,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after liberation. Koreans failed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 but in 1948,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South with Rhee Syng-man as the first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The Yi Sŭngman administration wanted to emphasize that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lay in South Korea. Internally, he tried to strongly unite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build a new nation. To this end, Yi Sŭngman's regime emphasized that Koreans share the same bloodline, in other words, it defined the Korean people as members of the same ethnic family who share paternal lineage. They used this as a major governing ideology. This was Ilmin(一民)ism, or One People Principle, but also One Policy. If you want to understand a little more about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emergence of racist and patriarchal democracy on the Korean Peninsula, I recommend looking at additional literature. In the case of mixed-race children, their appearance was not only heterogeneous. Since the father was not Korean, they were considered a threat to the identity of a pure blood state pursued by the Yi Sŭngman administration. Also, as mentioned earlier, there was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mothers of mixed-race children were all prostitutes. This perception made mixed-race children more problematic.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wanted to emphasize and promote the country's decolonization and self-reliance, but the reality was that it relied heavily on the U.S. in all areas – military,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 This pow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reproduced by Korean women as subordinate to American men. For this reason, mixed-race children were considered a political issue that could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regime by their existence alone. Therefore, Yi Sŭngman's administration recognized this problem very seriously from the beginning of the emergence of mixed-race children and actively intervened to solve it.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the growing number of mixed-race children



in Korea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There was also the Cold War in this background.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a world superpower through World War II. They were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isolationism and establishing a new national identity.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world order under the Cold War was being reorganized into the East and West. To win the race with the Soviet Union, it wa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task to bring the new Asian countries, which were building new states out of colonial rule, into the free democratic camp. To that end, the United States wanted to redefine itself as a non-imperialistic, benevolent world power that was different from European imperialism. But as we saw earlier, the situation where mixed-race children were born and abandoned in Asian countries by U.S. soldiers was a threat to America's new national identity. A mixed-race child was a representation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interfered with other countries by force, that is, imperialism. Americans were greatly concerned that the extremely miserable lives of mixed-race children in Korea were used politically by communist countries, and considered solving the problem of mixed-race children as an important political task.

While the Yi Sŭngman administration was trying to figure out many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mixed-race children they learned that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as possible in the case where a mixed-race Korean child was adopted by a U.S. citizen under the U.S. Refugee Act. Knowing that they actively started to pursue this solution. Thus, in 1954, Korea's first overseas adoption agency, the Korea Car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overseas adoption in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in number in the 1950s was largel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Harry Holt. Harry Holt, a devout Christian who ran a farm in Oregon, was surprised to see a video of Korean mixed-race children by chance and visited Korea and adopted eight mixed-race children. This is a picture of Mr. and Mrs. Holt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with eight adopted children. As you can see, Mr. Holt's adoption was very popular in the U.S. media, and because of this influence, many Americans, especially Christians, wanted to adopt Korean mixed-race children, and Mr. Holt came to Korea in 1956 and founded Mr. Holt Children.

At that time, many U.S. private aid organizations came into Korea for postwar



restoration projects and were active in the social welfare and medical fields. Together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ew adoption agencies, they actively engaged in adopting as many mixed-race children to American families before the end of the U.S. refugee law. They visited base villages and orphanages across the country and found mixed-race children, linked them up with adoptive parents, did the paperwork necessary for adoption and immigration procedures, and were in charge of everything. In addition to actively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cases where individual Americans sent letters to the Korean government wanting to adopt mixed-race children, and the picture you see here is a letter written by an American. By answering directly and finding the right children, they encouraged many mixed-race children to go to the United States.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SESSION 3	The Shadow of Heavy Modernization: Abandoned Children and Single Mothers

### The Shadow of Heavy Modernization: Abandoned Children and Single Mothers

At the end of this session, you will explain the continuation of overseas adoption and changes in target children in Korea in relation to Korea's patriarchal modernization, and talk about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Korean adoption after the postwar period.

Overseas adoption, which focused on mixed-race children in the 1950s, greatly reduced the number of mixed-race children available for adoption in the mid-60s. However, Korea's overseas adoption does not stop at this time. It continues to this day. The graph you see is a graph of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overseas every year from Korea. And you can see that in the early and mid-60s, there was a little bit of stagnation in foreign adoptions and then in the late '60s, and then in the '70s, it continued to increase, but in the late '70s, it decreased slightly, and in the '80s, it increased significantly again. In the 1980s, 65,000 children, the largest number in history, were adopted overseas. So many children were adopted overseas at that time. One out of every 100 children born in Korea were adopted overseas. This was more than 10 times higher than other child sending country. Because of this, Korea was stigmatized as a child exporter. Although adoption decreased in the 1990s, more than 2,000 children were still adopted overseas every year. Over the past 10 years, the number has decreased further, and about 200 to 300 children are now adopted overseas every year.

In this session, we would like to examine why overseas adoption which was related to intensive development, continued in Korea after the postwar recovery period. Read the following two articles and think about how the children subject to overseas adoption have changed in Korea and how this has to do with modernization in Korea.

Read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between O and X. In Korea, with economic growth, overseas adoptions have decreased. The answer is X. So let's look at the foreign adoption that continued in the shadow of economic growth.





The reason why overseas adoption was able to continue in Korea is because the children subjected to adoption changed. This table shows the background of the adoption of children who were adopted overseas every 10 years from the 1960s to 2000. First of all, I want to focus on the 1960s. Most of the children adopted at this time were abandoned children. The important social background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n the 1960s was the problem of abandoned children. When these children became the target of overseas adoption, Korean overseas adoption was no longer centered on mixed-race children, but on non-mixed children. The table you see on this screen summarizes the number of abandoned children in the country every year between 1960 and 1969. At this time, an average of 6,600 children were found every year in Korea, about 20 children every day, at train stations, on the roadside, and in markets. This figure did not decline significantly in the late 60s.

Child abandonment is a very complicated social problem, and it is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the cause, but some of it can be inferred through statistical data. During this period, most cases of abandoned children occurred in large cities such as Seoul and Pusan, indicating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hild abandonment problem and Korea's rapid urbanization. Since the late 1950s, urban and rural migration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U.S. and the rural economy becoming very impoverished due to high-interest bonds. Although industrialization was promoted under the Park Chŏnghŭi administration in the 1960s, stable jobs were very limited compared to the rapidly increasing urban population. Under the low-wage policy, the situation of workers was very unstable, so huge slums were formed in the Han River area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abandoned children problem, it is necessary to briefly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policy during the Park Chŏnghŭi administration. On the surface, he announced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state, but if you look at the actual policy, he was putting the responsibility of all welfare on the family. In fact,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individuals in very serious crises or financially difficult situations to be subject to public assistance if they had adults in their families, especially working adults. In other words, if a child had parents or grandparents, it was



virtually impossible to rece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welfare organizations at the time. So when poor families in the city met the crisis, they abandoned the children as a survival strategy. And at that time, under the leadership of social entrepreneurs who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discourse on child welfare in the West, based on the child-centered principle that children need families, children subject to overseas adoption changed from mixed-race children to abandoned children in the late 1960s.

In the 1970s, children subject to overseas adoption changed dramatically once again. If you look at the table, in the 1970s, the children of single mothers and unmarried women were adopted overseas, and since the 1980s, more than 90% of children adopted overseas were born to unmarried women. In other w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continuous overseas adoption in Korea even afte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we need to look at single mothers. These two images are from newspapers from 1973 and 1974. At that time, articles frequently appeared in the media showing concerns about the increase in unmarried mothers in the early 70s.

It was in the 70s that single mothers became visible in Korean society, and the direct social background was industrialization. As I mentioned briefly earlier, the Park Chŏnghŭi administration rapidly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fter taking power in 1961 through a coup. In particular, while promoting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textiles, clothing, and food were promoted, and for this reason, a large number of women were put into the labor market. In 1963, there were 180,000 female workers in Korea, and in only 20 years they increased more than seven times to more than 1.4 million. In the mid-1970s, more than half of the industrial workforce was female workers. Female workers were mostly young unmarried women between the ages of 15 and 25. The reason is that most of the children in rural or poor families had limited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n the case of daughters, they went to cities such as Seoul, Inch'ŏn, and Taegu immediately after completing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and worked as workers in factories and services to support their families. As the number of unmarried women who worked in cities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t such a young age increased, the existence of single mothers was first discovered by social workers in the early 1970s. As this problem became widely known in



Korean society, it began to be acknowledged as a social problem.

At that time, the pregnancy of unmarried women was a big problem because Korean society maintained a solid patriarchal order eve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other words, sex for women was only allowed after marriage. Therefore, sexual desire, sex life, pregnancy, and childbirth of unmarried women were not socially acceptable because sex was only understood from a limited perspective of reproducing the husband's bloodline. Therefore, when a single woman was pregnant, she was often excluded from her closest family because it brought great shame to her relatives. In addition, public livelihood support or childcare support for single women to raise their children was almost absent. Under these conditions, it was almost physically impossible for unmarried women to work alone and raise children. Even if women endured these difficulties and raised their children, as they grew up the children of unmarried women were exposed to various institutional and social discrimination because they did not have a father. Since then, single mothers have existed not only in the working class but also in different ages and classes in the 1980s and 90s. Amid the continued social, physical, and institutional exclusion,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70% of single mothers in Korea have given up on raising their children

But there's one thing that I want to point out very importantly. Overseas adoption could not be established just because there were abandoned children and children of single mothers in Korean society and they became a social problem. This is because overseas adoption could only be achieved if there were foreign families who wanted these children. This is the graph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that we saw earlier. The period of rapid increase in overseas adoption in Korea was in the late 1960s. The reason for the rapid increase in adoptions during this period is that not only the United States, which adopted mixed-race children right after the Korean War, but also 10 European countries began to adopt Korean children almost simultaneously. In other w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domestic situation in Korea at the time but also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the adoptee countries.

At that time, France, the Netherlands, Sweden, and Denmark started adopting



Korea. These countries experienced a common social phenomenon in the 1960s, which mean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in need of new homes in their countries ha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restoration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welfare states expanded in Western Europe and Northern Europe, and support for poor famili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re were policies of support to help single mothers raise their children.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single mothers were the subject of social stigma in the West. However, through the mid-20th century, women's rights improved and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that could help single mothers raise children were established, allowing many women to choose to raise their own children. As a result, in these Western countries, the number of children eligible for adoption was greatly reduced. Bu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people trying to adopt in those countries had increased.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number of infertile couples increased, being a parent for the white middle class in the West at that time was not just about reproduction, but also directly related to individual achievement and social status. Thus, many middle-class Western couples who were unable to adopt children in their own countries found adoptable children overseas, and Korea became an important overseas adoption sender.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SESSION 4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Korean Adoption Community

###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Korean Adoption Community.

Through this class, you will be able to compare and explain the theories of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in migration research, and you will analyze the life of Korean adopters and the significance of forming a transnational community with these theories.

So far, we've looked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n this session, I would like to look at what Korean adoptees have experienced in the settlement country and how they formed a Korean adoptee community. Before we look at this, did you find that the topic of today's lecture, the International Adopted Korean Diaspora, a little different from the topic of other courses? Up until now, the "Diaspora in Korean History" course has covered Koreans in Japan, Koryŏin, Koreans in America, and Koreans in Germany. In this case,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diaspora group was defined based on the country or region in which they all settled. However, in the case of adoptees, it is not only defined by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the U.S., Sweden, and France, but also covers more than 10 resettlement countries that accept international adoptees. This is a collective identity created by adoptees themselves, and they formed a community around the fact that they were born in Korea and experienced the unique form of migration and growth of international adoption, rather than the fact that they were adopted to a specific country. In this session, you will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how adoptees formed these communities through the concept of transnationalism. Read these two articles and define the concept of transnationalism. Think about what you can relate to these articles regarding the process of forming a community of Korean adopters.

This is the preliminary quiz for this session. Read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between O and X. Transnationalism believes that the reason why migrants continue to have relationships with their countries of birth is because they have not properly adapted. The answer is X. Let's start learning now.





Transnationalism can also be translated as “super-nationalism.” To understand transnationalism, we need to first look at the theory of assimilation, which was previously a concept used for analyzing the lives of migrants. In addition, assimilation theory generally explains that when migrants arrive at a settlement country, their proficiency in the language of the settlement country is poor and they stay in the lower classes in a situation where they lack the necessary education or skills. So in order to get the capital that’s needed at this time, the migrants tend to stay with people from the same region. But over time, the immigrants build up the language, technology, and connections of the settlement. In this process, assimilation theory says, they naturally break off relations with the country of birth. Through this assimilation process, they argue that migrants experience a rise in class and can be naturally incorporated into the mainstream society of the settlement country. The biggest feature of assimilation theory is that it believes country of origin negatively affects the settlement in the new country. In other words, they define the identity of the migrants as a zero-sum game in which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e country of birth and the country of settlement, and this theory defines success of settlement as choosing the latter. In the 1970s and 80s, this theory of assimilation was the mainstream way of understanding immigrants.

But in the 1990s, transnationalism emerged as a concept that understands the lives of migrants in a new way.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was globalization, which accelerated the exchange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 as transportation and the Internet developed rapidly. At that time, more anthropologists started studying the lives of migrants. They figured out that the conventional assimilation theory was far removed from the lives of real migrants, and they theorized transnationalism. Transnationalism is characterized by a focus on the behavio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is way, it is argued that the life of migrants is not confined to the framework of a nation-state, either a settlement or a country of birth, as assimilation theory says, but that many migrants live in transnational territory that encompasses the country of origin. In other words, many migrants are very active in politic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settlement country, while continuing to communicate with relatives in the country of birth, and beyond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in the country of birth. Transnationalism is the continuous exchange and relationship that takes



place from below an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ransnationalism sees it as very violent to keep migrants in the framework of just one nation–national state. They claim that it is possible for them to belong to both settlement and birth countries.

How can we understand the life of adoptees through the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theories that we’ve just looked at? There’s one thing I need to point out here. It is the diversity of life lived as an overseas adopter. As you have seen in my lectures so far,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200,000 Korean adoptees. They have been adopted into families from different backgrounds in more than 10 countries over a period of nearly 70 years. In other words, not all adoptees have the same growth experience. It’s based on this diversity. If you look at the adoptees’ lives on the basis of diversity, there are some important experiences in common. Among them, I would like to examine two experiences by linking them to the formation of an adoptee community.

The first is the racism that Korean adoptees experienced in Western countries experienced as people of color. Thomas Ring, a Korean adoptee who was adopted to Denmark in the 1970s, explains his experience of racism at the airport in Copenhagen as follows. “Whenever I go to the airport, I feel racism. Immigration inspector asked me why you are here and I answered that I am a citizen.” Many Korean adoptees say that as they grew up, they experienced frequent racism in public spaces such as schools, streets, and workplaces. This experience does not seem to be much different from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ther non–white immigrants. But in the case of adoptees, they experience a special kind of racism because they are adopted internationally. At the beginning of the lecture, we said that international adoption tends not to be recognized as international migration because children migrate and are immediately adopted by citizens of the settlement country. Because of that, in many cases, white adoptive parents raised Asian adoptees as if they were white children, not non–white children. But this very unique growth experience made it difficult for adoptee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skin color and the resulting discrimination and also to express it to their adoptive parents. In other words, unlike other immigrant children, adoptees experienced racism in a very special place where even if they experienced racism they had no family or



friends to share it and no way to understand.

At the same time, many Korean adoptees say that they wanted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Korea, their country of birth, and the birth parents who gave birth to them, but grew up knowing little about it. This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assimilation theory we talked about earlier. This is because there was a strong social atmosphere at the time that it was important to completely cut off relations with Korea in order to integrate adopted children into society. Because of this, many adoptees say they have grown up in an atmosphere where they could not freely express their curiosity or feelings about Korea. Due to time constraints, I gave a somewhat schematic explanation of the adoptees' experience. Korean adoptees often express their experiences through media such as novels, poems, paintings, and movies. If you are interested, I recommend that you look for the works in the references.

Since the late 1980s, when the number of Korean adoptees who became adults increased in earnest, self-help groups of Korean adoptees have appeared. Let's connect this process with transnationalism. The world's first adoptee organization appeared in Sweden. According to its founder, Mattias Tjeder, when he turned 17 he wanted to know Korea, so he took a Korean language course provided by Swedish Korean immigrants. In that lecture, he met four or five Korean adoptees. This was Matthias' first experience interacting with other Korean adoptees. He created the Korean Adoptees Association with them in 1986. Through word of mouth, many Korean adoptees living in Sweden signed up. Around the same time, many Korean adoptees' self-help groups were formed in other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in Switzerland, where a Korean pastor dispatched from Korea was deep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roup. This is because in the early 1990s Korean civil society judged that, for the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 it was very important to connect with Koreans scattered around the world, and in this process, adopte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Koreans.

Switzerland's adoptee self-help organization later held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n adoptees in Europe in 1995 based on a very close connection wi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is picture is the conference pamphlet. Through this event, adoptees scattered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gathered in one place and m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self-help groups were formed in each region during this period. These are the logos of adoptee self-help groups formed in each country and region. These group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of Korean adoptees. Through these organizations, adoptees found that other adoptees were universally experiencing the aforementioned racial discrimination and questions about their biological families, and there had never been room to express them. It goes a little further from here. They understood that there was international adoption at the root of this particular experience. Through this, adoptees more actively defined themselves as “Korean adoptees.”

In particular,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univers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the 1990s were the important background of Korean adoptees’ transnational identity across borders. And as the adoptee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set up websites, a lot of adoptees joined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there was an e-mail list that gathered adoption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and connects Korean adopters around the world. Through this, news and information of foreign Korean adoptees around the world were shared in real time. This created a “transnational Korean adoptee community” across the border. In 1999, the world’s first Korean adoptees meeting was held in Washington, U.S. It was an event that actualized the sense of community that was formed online. The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a coalition that unites individual self-help groups, was formed in 2004. And the organization holds an event for Korean adopters around the world every three years in Seoul. Most recently, there was an event in 2019, and about 700 overseas adoptees gathered in Seoul.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SESSION 5	Returned Adoptees and Korean Society

### Returned Adoptees and Korean Society.

At the end of this class, you will understand that the process of Korean adoptees being recognized as an important Korean diaspora is related to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we will talk about its limitations. Transnationalism can be applied to analyze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the activities of return adoptees in Korea.

As explained in the previous lecture, children subject to overseas adoption were in the most marginalized position during the patriarchal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n society. Then, was the existence of Korean adoptees in Korean society completely forgotten? That's not true. The lives of overseas adopters and adoptees have been constantly mentioned in the mass media. The 1991 popular film "Susanne Brink's Arirang" is a case in point, as it epitomizes how adoptees were reproduced in Korea. The Korean media reproduced Korean adoptees as victims and passive beings who were hurt by separation and migration, as shown in this movie. Also, they understood the life of the adoptees by limiting it to private areas such as relationship with adoptive parents or reunion with biological parents. In the previous session, w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a self-help group for Korean adoptees in the 90s.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adoptees returning to Korea had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what kind of relationship Korean adoptees have actually formed with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the image of adoptees in media. Before this class, read these two papers and think about the transnationalism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in relation to adoptees' activities in Korea.

Before this class, read the following sentences and think if they are correct. The return of Korean adoptees and their activities in Korea can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exclusively personal nature to find their own blood ties and roots. The answer is X. So let's look a little bit more into return adoptees.

To understand how the return adoptees formed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what activities they did in Korea, we first need to understand what policies and posi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on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last more than half a century. In the 1950s, when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d the policy of sending mixed-race children abroad, it gave its own legitimacy to overseas adoptions as an act to send children to a more powerful country, the U.S., based on paternalistic thinking. But as we go into the 1960s, adoptees were no longer mixed-race children, but non-mixed-race children. And as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to various countries, this argument lost its power. Instead, they thought that overseas adoption should have been hidden. The reason why they saw them as something to hide was because, there was a perception that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that was sending children for adoption did not properly protect its children.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that the sending country was incompetent especially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building a modern state under the division system was considered a matter of not only shame but also shaking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itself. This graph you saw earlier shows the adoption figures in Korea. Here, the number of overseas adoptions in Korea dropped twice, one in the late 1970s and the other in the late 1980s.

The first decline in overseas adoption came in the early 1970s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publicly criticized the South's expansion of adoption. In the early 1970s, the Cold War polarization was eased worldwide, but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became strained as both governments used it to strengthen their power base immediately after the July 4 South-North Joint Statement in 1972. Against this backdrop,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critici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sending children for adoption in foreign countries, which it considers a disgrace. The second reason for the decline was the 88 Seoul Olympic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wanted to promote its image as an emerging developing country through the Olympics instead of the image of Korea as a backward country suffering from the evils of war. However, progressive Western media reported that Korea continued to expand its overseas adoptions despite it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y accused Korea of being a child exporter.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policy to reduce overseas adoption. Both policies in the late 1970s and late 1980s were the



same, which was to expand domestic adoption instead of reducing overseas adoption. There were a lot of problems with this government policy.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was that the government's measures were not to redefine the nation's social welfare system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the single mothers or children and improve awareness of single mothers. It was a post-hoc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domestic adoption rather than overseas adoption for children who had already been separated. In other words, the policy to reduce overseas adoption continued to fail in the situation where the conditions of separation of the children were not changed, and the number of children in need continued to occur. Overseas adoptions continue to this day.

In the 1990s, the number of adoptees visiting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formation of self-help groups. However, at that time, Korean society did not expect adoptees to return in such a large number. Because of this, there was no organization or service in Korea to support adoptees professionally. But at this time, the Korean government rediscovered Korean adoptees. The background was neoliberal globalization. At that time, the Kim Yöngsam administration adopted globalization as a central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next administratio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anted to attract more than 5 million overseas Koreans scattered around the world, and in the process, 200,000 Korean adopters were re-evaluated. Let me tell you what this is about. Until this moment, the Korean government had recognized that overseas adoption was shameful and needed to be hidden. After their return, adult adoptees were no longer orphans, abandoned children, or children of single mothers, but they had been adopted by middle-class Western families and raised with higher education, and recognized as very capable Korean talent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various kinds of support such as giving them the possibility to visit the home country and granting them long-term stay in Korea to recruit them as Korean diaspora. It was a very important and big change for Korean adoptees to be recognized like this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had the limitation of supporting adoptees for the government's purpose of globalization, not providing the services they need from the adoptees' point of view. For this reason, from the beginning of their return, adoptees felt the need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in Korea and establish self-help organizations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As a result, in 1998, the Overseas Adoptees' Solidarity (GOA'L,) was established in Seoul. Earlier, I said that adoptees were granted long-term residence status in Korea, but they had been considered foreigners when they first entered Korea in the 1990s. Because of this, they had to go abroad every two years to renew their visa. To solve this problem, organizations such as GOA'L and individual adoptees have continuously inform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of the issue. As a result, Korean adoptees are now included in the Overseas Koreans Act enacted in 1999, and they are eligible for long-term stay. This picture you see here is the organization's website. It actively provides services such as finding one's biological family,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Korean classes,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necessary services for adoptees in Korea. Through this, Korean adoptees are trying to create their own space in Korea. Along with these self-help groups, there are also returning adoptee groups that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to change the structure of overseas adoption. Although they are a minority,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ir activities in terms of actively intervening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efforts to transform it.

Among the various adoptees' political activities, returning adoptees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issue of single mothers. They saw that there was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and lack of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background of Korean society'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inued overseas adoption, and launched a social movement to support them. As mentioned earlier, they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continue to pursue the principle of protecting cost families and made efforts to change this situation. By meeting single mothers in person and sharing their experiences as adoptees, they not only helped single mothers make decisions about children with more information, but also strived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single mothers through various campaigns and academic conferences.

Also, more than a few of the return adoptees have worked very hard to find their biological parents. Adoption document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is process. When adoptees visited adoption institutions or childcare facilities to look at documents, in many cases, they had restricted access to the entire



adoption document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lso, many problems were found in some published documents.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tion about the biological parents actually existed in the institution, it was omitted in the documents. There were many cases wher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date of birth or name was written incorrectly on the document. Not only did these problems make it difficult for adoptees to find their biological parents, but they also caused great confusion in their personal identity. So adoptees define access to adoption documents as the adoptee's right to know and a human rights issu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alled for legal assistance and a thorough investigation of paperwork to redefine overseas adoption as a history to face, not just a history to hide.

This is a picture of a policy debate to revise the Special Adoption Act. As a result of this effort, the adoption law was revised in 2012. The first overseas adoption law was enacted in Korea in 1961.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a law that reflects the voice of adoptees was enacted. This law is the first Korean adoption law to specify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original family and the right of adoptees to access adoption information.





WEEK 10	Korean Diaspora in International Adoptions
SESSION 6	International Adoption as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Adoption as Transnationalism.

After this class, you will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overseas adoption from a world history perspective. And you will be able to analyze Korean adoptees' organizations and movements in Korea through transnationalism.

Do you remember the first picture of the adoptive family you saw in the lecture? It was a picture of white parents adopting children of color. Among Korean adoptees, there were cases where they moved back to the adoption country after movements of soci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continued political activities related to adoption. So they questioned the conventional view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a good deed that transcends race and helps children in the world's troubled environment. As a representative example, let's take a look at the work of Jane Jin Kaisen, a Danish Korean adoptee writer.

It's called "The Andersons," which means Anderson's family. In this work, Kaisen wrote about a Korean American couple that adopted the white child of a Danish single mother. She produced various video and photographic works. Through this, the artist could see through the pictures that the race order between the adopted child and the adoptive parent was reversed. This subversion was intended to emphasize that in international adoption, children are moving one-way from non-Western countries to Western countries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And even further, through this work, she wanted to tell the adoption countries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a kind of privilege that only the very wealthy individuals of Western society can enjoy, which deprives many poor families and single mothers of child rearing in non-Western countries.

Today, Korean adoptees form communities across national borders and are engaged in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to transform socie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adoptee countries. Their transnational activities give us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way we generally understand society, such as citizens/non-citizens, natives/immigrants, and countries of birth/settlement.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Kore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History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Diaspora in Korean History

# 讲义







第10周	国际收养的离散韩人
第1课时	移居和国际领养

本周将学习被国际收养的离散韩人。为此需要首先了解移居和国际领养，并以混血儿童和冷战为主题开始观察韩国的海外领养。接着我们将了解弃婴和未婚妈妈，并讲述韩人被领养人的跨国共同体形成和回归的被领养人和对待他们的韩国社会。在最后的第6课时中以跨国主义谈论国际领养，并结束学习

### 移居和国际领养

这是本课时学习目标：大家可以通过掌握国际领养所具有的特殊性，明确说出国际领养概念，说明在世界国际领养的历史上韩国的重要性。

一提到国际领养会想到什么形象呢？也许像这里一样，会想起白人夫妇收养东方或黑人儿童的形象。像这样，国际领养，一般都是超越人种和国境形成家庭的进步行为，也是向处于世界困难处境的儿童，提供家庭的善意行为。今天，在最后一堂讲座中，将通过6个课时，讲述韩国海外领养的历史，以及跨国韩人被领养人共同体的形成过程。通过这些可以有机会，重新考虑，现在在这里看到的海外领养形象，阅读有关国际领养的论文，思考一下国际领养的特征吧。

这是本学习前的课前问答，看下面提示的文章，判断正误。国际领养一直由非西欧国家向西欧国家进行。正确答案是X。那我们再了解一下国际领养吧。

在新自由主义世界化潮流中，从非西欧地区前往西欧地区的移民的增加、纷争地区的难民激增，在过去的20多年里，移居研究的范围和数量大幅扩大。尽管有这种拓展，但移民研究很少涉及国际领养，关注这种现象。

人口学家理查德韦尔将国际领养比喻为“安静的移民”。国际领养之所以没有被看作是移居研究的对象，是因为国际领养是非常独特的移居形态。首先大部分移居是成人单独移动或以家庭为单位移居的情况占绝大多数。与此相反国际领养具有儿童特别是婴幼儿单独移居的特点。与此同时，国际领养具有被领养儿童移居后与定居国的国民养父母在法律上形成父母、子女关系的特点。通过这种法律领养，移民儿童在短期内可以毫无困难地，获得定居国的市民权。即，不像其他移民者那样集团性移居，而是具有直接编入定居国主流社会的特点。因此，正如之前的照片所示，国际领养与其说是移居，不如理解为形成家庭的方式。因此，移居研究也没有特别关注。

但是，举一个非常明显的例子。最近，在美国由于养父母没有经过领养儿童的美国市民权



取得程序，成年后的韩人被领养人被驱逐到韩国的事例很多。仅从这些情况来看，国际领养是严格按照送孩子的国家和接受儿童的国家移民法、国籍法进行移民的一种形态，很难单纯地看作是“安静的移民”。因此，与其他移居形态相比国际领养有着不到100年的短暂历史。

经过第二次世界大战，国家间领养正式开始了。特别是美国人领养了在战争的废墟和混乱中失去父母的欧洲儿童后，开始了国际领养。直到1940年代和50年代，大部分希腊、德国、意大利、波兰儿童被领养到美国。此后被领养的国家扩展到亚洲、南美、东欧、非洲等地区。被领养的国家不仅是美国，还扩展到了其他西部地区欧洲、澳大利亚、加拿大。进入21世纪后国际领养大幅减少。尽管如此，据推算从20世纪中期开始到今天为止，约有100多万名儿童被国际领养。

现在这张照片是20世纪50年代被领养到美国圣地亚哥的希腊儿童的照片。在国际领养中，韩国作为送走儿童的输出国家，占据着非常中心的地位。因为我们现在理解的非白人儿童被领养到白人家庭的跨种族领养是从韩国正式开始的。从记录上看，韩国从1953年正式开始海外领养后，至今仍在领养。作为单一输出国家，在70年里，是儿童被领养到海外的最多的国家。现在看到的表格是按照领养国家分类、显示从韩国被领养到海外的儿童数值的表格。约有20多万名韩国儿童被领养到10多个国家的西欧国家，经由韩国，国际领养成为了全球性现象。





第10周	国际收养的离散韩人
第2课时	韩国海外收养的开始 混血儿童和冷战

通过此次学习，大家可以将韩国海外收养的开始，与冷战时代的国际秩序联系起来进行说明，可以通过对比两个国家全新的国民国家认同感的形成，进行分析和比较，找出混血儿童在韩国和美国都被认为是政治问题的原因。

在韩国，海外收养是怎么开始的呢？如图所示，海外收养在韩国开始的背景与混血儿童的出现有着密切的关系。而且这个混血儿童在韩国诞生的历史背景是冷战。1945年日本在第二次世界大战中战败，韩半岛摆脱了殖民统治。但由于地缘政治的重要性，由苏联和美国以38度线为界分为南和北，南方有美军政府。

与此同时随着美军流入韩半岛，美军男性和韩国女性之间开始出现混血儿童。在韩国混血儿童的数量大幅增加。这是因为发生了韩国战争。大规模联合国军队参与了韩国战争，在战时混乱中肆虐的性暴力导致了很多混血儿童的出生。但并非所有混血儿都是性暴力的结果。当时是第一届韩国政府的李承晚政权在战时，指示联合国军队设立慰安所，正式承认了性交易。1953年《停战协定》后，美军在韩国驻扎半永久化，美军基地周围形成了以美军为对象、进行性交易及提供多种服务的基地村。

现在在这里看到的照片是在基地村工作的女性和美军的照片。据推测，20世纪50年代韩国存在约18个基地村，6万多名女性以性交易为生。现在看到的表是从1954年开始，韩国政府重新编制的掌握全国混血儿童动态的统计资料。有必要了解这些数据是如何统计的。当时，（官方）亲自到地方基层公务员管辖的各个地区，询问混血儿童是否存在以及其数量。但很难认为这符合实际的混血儿童数字。据推测，实际混血儿童的数量比这多得多。

但从显示混血儿童在全国的分布情况来看，这是重要的资料。正如你所看到的，集中在首尔、京畿、庆南地区，确认有混血儿童居住。这是因为美军基地和基地村位于该地区。另外这里也有一点很重要。很多混血儿童确实出生在基地村，但即使如此也不能把所有混血儿童都看成是性交易的结果。正如你现在在表格中看到的，在没有基地村的地区也出生了混血儿童。

请阅读以下两篇论文，思考一下混血儿童为什么在韩国和美国被认为是有问题的。看下面的句子，判断正误。混血儿童在韩国正式登场与冷战有关。正确答案是O。

那么，让我们进一步了解混血儿童的出现和冷战的关系。当时混血儿童的生活很艰难。大部分情况下，混血儿童的美军父亲并不承认他们是自己的孩子。而是在结束了在韩国非常短的服役时间后，回到了本国。被母亲遗弃的情况下，也有在孤儿院等设施长大的情况。即使在母亲或外



婆家养育儿童，也可以从当时非常常见的“油炸”等用语中看到，混血儿童受到了社区的极大歧视和排斥。

当时，混血儿童被认为是一个重要的社会问题。但是从前面的表格中可以看出，韩国政府在战后混乱的情况下，从1954年开始每年都努力掌握混血儿童的数量和位置。这是因为韩国政府不仅将混血儿童单纯视为社会福利问题，还将其视为政治问题。为了理解混血儿童因为什么原因被视为政治问题，有必要简单了解当时韩半岛的政治情况。

如前所述，韩半岛在解放后分为南和北，虽然为建立单一政府而努力但失败了，1948年以南边的李承晚为第一任总统的大韩民国，以及北边的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成立。李承晚政权对外强调在韩半岛政权的正当性在南韩。从对内来，看为了建设新的国家，有效地凝聚韩国的国民，为此李承晚政权强调韩国人是一个血脉。也就是说，将韩国国民规定为共享父系血统的单一民族，将其作为主要治理理念。这一元化为一民主义，如果想进一步了解在韩半岛出现种族主义和家长式民主主义的背景和传记，我推荐你查阅其他文献。

混血儿童不仅外貌不一样，因为父亲不是韩国人，所以被认为是对李承晚政权追求的纯血主义国民国家认同感产生裂痕的存在。正如我之前所说，混血儿童的母亲都是性交易女性的认识高涨，这种认识使混血儿童成为更具问题性的存在。当时韩国政府想在国内外强调和宣传，本国在进行脱殖民、自主国家的建设。但实际情况与此截然不同。为了国家建设在全领域，即军事、政治、经济、教育等都很大程度上依赖于美国。在这样的韩国、美国之间，国家之间的权力关系再现为韩国女性从属于美军男性。因此混血儿童仅凭其存在，就被认为是动摇南韩政权正当性的政治问题。因此李承晚政权从混血儿童出现之初，就非常深刻地认识到了这个问题，并积极介入解决。

另外，在美国，不断增加的韩国混血儿童，也被认为是重要的政治问题。此背景里也有冷战因素。美国经历了二战成为了世界超级大国，摆脱了以前的孤立主义正在建立新的国家认同感。特别是在冷战下的世界秩序正在重组为东西阵营的情况下，为了在与苏联的竞争中获胜，将当时摆脱殖民统治、正在建设新国家的亚洲新生国家，引入自由民主主义阵营被认为是非常重要的课题。为此美国试图将自己重新定位为不同于欧洲帝国主义的、非帝国主义的、慈爱的世界强国。但正如我们之前看到的，因为美军在亚洲国家混血儿童出生并被遗弃的情况，是站在了美国新的国家认同感的对立面。混血儿童证实了美国对其他国家进行武力干涉的情况，即帝国主义的样子。美国人非常担心在韩国混血儿童非常悲惨的生活被共产主义国家政治利用，把解决混血儿童问题视为重要的政治课题。

李承晚政权为了解决混血儿童问题，正在探索各种方法。当时在美国的难民法下，知道韩国的混血儿童被美国公民领养的情况下可以移民到美国。所以开始积极推进这一点，因此1954



年在韩国政府的支援下，韩国第一家海外领养机构——韩国养护会（现大韩社会福利会）成立。

特别是在20世纪50年代韩国海外领养数量大幅增加的背景下，美国人哈利霍特的影响很大。当时在俄勒冈州经营农场的哈利霍特、虔诚的基督徒哈利霍特偶然看到韩国混血儿童的视频后大吃一惊，来到韩国领养了8名混血儿童。现在的照片是霍特夫妇和8名领养儿童一起抵达美国的照片。正如你现在看到的，霍特先生的领养受到了美国大众媒体的极大关注。受此影响，很多美国人特别是基督徒想领养韩国混血儿童。霍特先生1956年访韩，成立了霍特先生养子会（现霍特儿童福利会）。

当时为了战后恢复事业，很多美国民间援助团体进入韩国，在社会福利或医疗领域活跃活动着。他们与韩国政府和新生领养机构一起积极活动。在美国难民法结束之前，将尽可能多的混血儿童领养到美国家庭，他们一一访问了全国的基地村和孤儿院，找到了混血儿童并与养父母结缘，办理领养和移民手续所需的文件工作，并全权负责所有事情。李承晚政权不仅积极支援了美国民间团体的活动，个别美国人还向韩国政府发送了希望领养混血儿童的书信。这里看到的照片是美国人写的信，在这里他亲自回答并为其寻找合适的儿童，鼓励尽可能多的混血儿童前往美国。







第10周	国际领养的离散韩人
第3课时	压缩性现代化的阴影 弃婴和未婚妈妈

结束此次学习后，大家可以用韩国家长式、压缩式近代化来解释韩国海外领养的持续及对象儿童的变化。从国家间社会经济结构的差异这一宏观视角，可以谈论战后时期以来韩国领养的持续和扩张。

20世纪50年代，以混血儿童为集中对象的海外领养正在进行。进入60年代中期，可以领养的低龄混血儿童数量大幅减少。但是韩国的海外领养没有中断，一直持续到今天。现在看到的图表是韩国每年被领养到海外的儿童的数值图表。正如你现在看到的，60年代初中期海外领养略有停滞，60年代后期急剧增加，70年代继续增加，70年代后期略有减少，80年代再次大幅增加。20世纪80年代，6万5千名儿童被领养到海外，达到韩国历史上的最高值。这个时期有多少儿童被领养到海外呢？在韩国出生的每100名儿童中，就有1名被海外领养。这个数字是其他国家儿童出境人数的10倍以上。因此，韩国被误认为是儿童出口国。虽然进入90年代后领养有所减少，但每年仍有2000多名儿童被领养到海外。最近10年来 数据进一步减少，每年200至300名左右的儿童被领养到海外。

在此次课时我们将对韩国的压缩性近代化进行考察，看看战后恢复时期过后韩国为什么会持续海外领养。读下面两篇文章，想想在韩国海外领养对象儿童发生了什么变化？这与韩国近代化有什么关系？看下面的句子，从O、X中选一个。随着经济增长韩国的海外领养也减少了。正确答案是X。

那么，让我们看看在经济增长的阴影下持续的海外领养。海外领养之所以能在韩国持续下去，是因为领养对象在不同时期发生了变化。现在看到的是1960年代至2000年，以10年为单位的被海外领养儿童的领养背景表格。首先我想关注20世纪60年代。这个时期被领养的儿童大部分是弃婴，也就是被遗弃的儿童。20世纪60年代在韩国持续海外领养的重要社会背景是遗弃儿童问题。随着这些儿童被认为是海外领养儿童对象，从这个时期开始韩国海外领养不再以混血儿童为中心，而是以非混血儿童为中心。现在屏幕上看到的表格是1960年至1969年间，每年全国发生的弃婴数据的整理表。这个时期平均每年有六千六百多名儿童，也就是说全国每天约有20名儿童在火车站、路边、市场等地被发现。即使到了60年代后期这个数字也没有大幅减少，儿童遗弃是一个非常复杂的社会问题，很难弄清原因。

但可以通过统计资料进行一定程度的推断。这一时期大部分弃婴发生在首尔、釜山等大城市。这说明弃婴问题和韩国急剧的城市化之间有着紧密的联系。从20世纪50年代后期开始韩国的农民移居急剧增加。这是因为美国引进剩余农产品和高利贷，使农户的经济非常疲弱。虽然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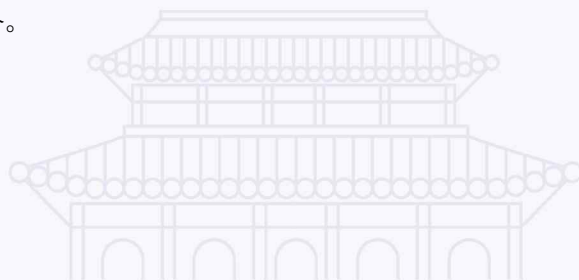
年代朴正熙政权下推进了产业化，但与急剧增加的城市人口相比稳定的工作岗位非常有限，在低工资政策下工人们的情况非常不稳定。因此像现在看到的照片一样，巨大的贫民窟在汉江等地形成。

与此同时，为了理解弃婴问题，有必要简单理解朴正熙政权时期的社会福利政策。从表面上看他表示要建设福利国家，但从实际政策来看他把所有福利的责任都推给了家人。也就是说，实际上即使个人处于非常严重的危机状况或经济上非常困难，政府也没有将家庭中的成年人，特别是有劳动力的成年人视为公共补助的对象。也就是说，对于儿童来说，如果有父母或祖父母，实际上在当时得不到政府或民间福利团体的支援。所以当城市的贫困家庭在危机的情况下儿童的保育变得困难时，作为一种生存战略将儿童遗弃在公共场所。而且在当时深受西方儿童福利讨论影响的社会企业家的主导下，根据儿童需要家庭的儿童中心主义原，在20世纪60年代后期，海外领养对象将从混血儿童变成遗弃儿童。

20世纪70年代海外领养对象再次发生巨大变化。从现在的表格来看，进入20世纪70年代，未婚妈妈、未婚女性的儿童被海外领养的情况急剧增加。20世纪80年代以后海外领养儿童的90%以上是未婚女性所生的儿童。换言之，为了理解韩国经济急剧发展后在韩国持续进行海外领养的背景，我们应该观察未婚妈妈们。现在看的这两张照片是1973年和1974年的新闻报道。当时媒体上频繁出现反映70年代初期担忧未婚妈妈增加的报道。

在韩国社会未婚妈妈可视化是70年代。其直接的社会背景是产业化。正如刚才简单提到的朴正熙政权通过政变。在1961年执政后迅速推进了经济开发，特别是在推进以出口为中心的产业化的同时，推进了纤维、服装、食品等劳动密集型产业。因此女性大举投入劳动市场。1963年韩国共有18万名女工 20年来增加到140万人，增加了7倍以上。在70年代中期一半以上的产业劳动力是女性劳动者，在这个时期女性劳动者大部分是15岁至25岁之间的年轻未婚女性。原因是当时在农村或贫困家庭中，如果有几个孩子，有限的受教育机会大部分都给了儿子。而女儿则在完成义务教育初等教育后，立即前往大城市首尔或仁川、大邱这样的城市谋生，在工厂和服务岗位上做工人的情况非常多。这么小的年纪就和家人分开，在城市从事劳动活动的未婚女性怀孕增加。

20世纪70年代初被社会企业家首次发现未婚母亲的存在，这个问题在韩国社会广为人知，开始被认为是社会问题。当时未婚女性怀孕成为很大的问题。这是因为韩国社会在推进现代化的过程中，也维持着家长式的秩序。也就是说女性的性只在结婚后才被允许。因此，从只允许传承丈夫的血统这种狭隘的视角来理解，未婚女性的性欲、性生活、怀孕、生育，在社会上是无法容忍的。因此未婚女性怀孕的情况下，很多时候会因为给家人带来巨大的耻辱，因而被排除在最亲近的家庭之外。





另外，几乎不存在为未婚女性养育而提供的公共生计支援或保育支援。在这种条件下，未婚女性独自工作并抚养儿童，从物质层面来说，近乎不可能。即使女性忍受这种困难养育儿童，未婚女性的儿童在成长过程中也因没有父亲，而暴露在各种制度和社会歧视当中。此后不仅是劳动阶层，20世纪80年代至90年代，在各种年龄和阶层中都存在着未婚妈妈。在这种持续的社会的、物理的、制度的排斥下，据推测70%以上的韩国未婚妈妈放弃了养育儿童。

但是在这里有一件非常重要的事情要指出，在韩国社会有过这样的弃婴和未婚妈妈儿童，仅凭他们成为社会问题化的理由来解释海外领养是不能成立的。因为只有有想要这些儿童的外国家庭，海外领养才能实现。这是之前看过的韩国海外领养图表，韩国海外领养急剧增加的时期是20世纪60年代末。这一时期领养急剧增加的原因是，不仅是从韩国战争后开始领养混血儿童的美国，欧洲的10多个国家几乎同时正式开始领养韩国儿童。也就是说，为了理解韩国海外领养的持续和扩散，不仅需要了解当时韩国的国内情况，还需要了解领养国的经济社会状况。

当时开始领养韩国儿童的是法国、荷兰、瑞典、丹麦等地。这些国家在20世纪60年代经历了共同的社会现象，这意味着本国需要新家庭的要保护儿童数量大幅减少。二战战后恢复后，随着西欧和北欧福利国家扩张，对贫困家庭的支援大幅增加。不仅如此对未婚妈妈养育儿童的支援也开始了。即使是20世纪初，未婚妈妈在西方也是社会烙印的对象。但经过20世纪中期随着女性权利的提高，帮助未婚妈妈养育孩子的各种社会福利制度的扩张，很多女性可以选择直接抚养儿童。结果在这些西方国家本国领养对象将大幅减少。但与此同时，这些国家想要领养的人反而增加了。这是因为虽然不孕夫妇有所增加，但在当时的西欧白人中产阶层之间，做父母不仅意味着再生产，还与个人成就和获得社会地位有着直接的关系。因此许多不能在本国境内领养儿童的西方中产阶级夫妇在海外找到了可以领养的儿童，韩国成为重要的海外领养出境地。





第10周	国际收养的离散韩人
第4课时	形成超国籍被领养韩人共同体

通过这次学习，大家可以比较说明移居研究的同化理论和跨国主义，可以运用同化理论和跨国主义分析韩国被领养人的生平和超国籍共同体形成的意义。到目前为止我们观察了韩国海外领养的历史发展，在此课时中我们将观察被领养韩人在定居国有过什么样的经历，以及如何形成被领养韩人共同体。

首先，在观察这些之前，你是否发现今天讲课的主题国际收养的离散韩人与其他讲座的主题略有不同。韩国史上离散韩人讲座到目前为止，主要讲述了在日朝鲜人、高丽人、在美韩人、在德韩人等。但在这种情况下我们可以看到所有人都以定居的国家或地区为准，规定了离散韩人团体。但被领养人的情况，不仅跨过了规定为定居国家的美国、瑞典、法国等个别国家单位，而是国际被领养的离散团体。可以看到，超过10个定居国都融合在一起，这是因为被领养人自己形成共同体后产生的集体认同感。与其说他们各自被领养到了某个特定国家，不如说他们本人出生在韩国，并以国际领养这种独特形式的迁移、成长经历为中心，形成了共同体。在本课时我们将通过跨国主义来理解被领养人是如何形成这样一个共同体的。

我想通过跨国主义的概念来理解一下。现在读两篇文章，定义一下跨国主义的概念，想想看在被领养韩人共同体形成过程中，可以把哪些部分与理论联系起来观察。请看下面的句子，从O、X中选一个。在跨国主义中将移民持续与出生国联系起来是因为他们还没有适应。正确答案是X。

那么让我们正式开始学习吧。为了理解跨国主义（也可以翻译成超国主义），有必要先看一下之前分析移民生活的概念同化理论。另外，同化理论解释说，一般如果移民到达定居国，定居国的语言生疏的话，在那里缺乏必要的教育或技术的情况下他们会停留在下层阶级。因此为了获得这个时期所需的资本，认为移民倾向于聚居在同一地区出身的人。但随着时间的推移，移民们会积累定居国的语言、技术和人脉。在这个过程中，会自然而然地切断了与出生国的关系。通过这样的同化过程，移民们将经历阶级上升，并自然地融入定居国的主流社会。同化理论的最大特点是认为移民与出生国家保持持续的关系会对移民国家的定居产生负面影响。即将移民的身份界定为零和游戏，必须在出生国和定居国两者中选择一个地方，然后选择后者就会认为移民成功了。

即使是20世纪70年代至80年代，这种同化理论也是理解移民的主流方式。但进入20世纪90年代后，重新理解移民生活的概念跨国主义出现了。在这个概念出现的时代背景下，是当时交通和互联网飞速发展，人、物、信息交流加速的全球化。在这个时期研究移民生活的人类学家增加

了。他们发现现有的同化理论，与实际移民的生活相差甚远，从而将跨国主义理论化。跨国主义具有把焦点放在非政府组织或个人行为上的特点。这样看来，移民的生活并不像同化理论所说的那样局限于定居国和出生国两个国家的框架，而是很多移民在将定居国和出生国结合在一起的超国家领域中日常生活。换言之，很多移民在定居国非常活跃地进行政治、经济活动，同时，与出生国的亲属持续沟通。不仅如此，还积极参与出生国的政治、社会问题。从这种自下而上的和超越国民国家界限，持续进行的交流和联系可以说是跨国主义。

这里比较重要的是，跨国主义认为把移民关在一个国民国家的框架中是非常粗暴的。他们主张，可以同时属于定居国和出生国两个地方。通过现在观察到的同化和跨国主义理论，如何理解被领养人的生活呢？

这里有一个重要的问题。那是海外被领养人生活的多样性。到目前为止通过我的讲座可以推测，目前大约有20多万名被领养韩人，在将近70年的时间里他们被领养为拥有10多个国家不同背景的家庭。也就是说不能认为所有被领养人的成长经历都是相同的。以这种多样性为基础，以多样性为基本前提观察被领养人的生活，有几个共同经历的重要经验。其中两个经验将与被领养人共同体的形成联系在一起。

第一个是被领养到西方国家的被领养韩人作为有色人种经历的种族歧视。20世纪70年代被领养到丹麦的被领养韩人托马斯林厄对在哥本哈根机场经历的种族歧视经历进行了如下说明：很多被领养韩人说长大后在学校、街头、工作场所等公共空间，频繁经历种族歧视。这些经历似乎与其他非白人移民所遭受的歧视没有太大区别。但被领养人他们会因为被国际领养而经历特殊性质的种族歧视。

在讲课初期说过国际领养的情况是儿童移居后就会被定居国市民的家庭领养。因此有不被认为是国际移居的倾向。因此在很多情况下，白人养父母在养育东方被领养人的过程中像白人儿童一样养育他们。但这种非常独特的成长经历，让人很难真正理解被领养人感受到的肤色不同或由此带来的歧视问题或向养父母表达。也就是说与其他移民的儿童不同，被领养人在一个非常特殊的位置上经历了种族歧视，即使经历了种族歧视也没有可以分享或理解这件事的家人或朋友。

与此同时，很多被领养韩人在成年的过程中探讨了身份认同感，想了解出生国韩国的文化和生下自己的亲生父母，但对此几乎一无所知。这和前面讲的同化理论有着非常密切的关系。为了将领养儿童融入主流社会，完全切断与韩国的关系很重要。因此多数被领养人在无法自由表达对韩国好奇或感情的氛围中成长。因为时间关系我多少有点格式化地说明了被领养人的经历。被领养韩人经常通过小说、诗、画、电影等媒体表达自己的经历，如果感兴趣，推荐查阅参考文献中的作品。





成人被领养韩人正式增加的20世纪80年代后期开始被领养韩人的自助聚会登场。让我们将这一过程与跨国主义联系起来看一下。全世界最早成立被领养人团体的地方是瑞典。据其创始人马蒂亚斯切德透露，他17岁时想了解韩国，当时听了瑞典韩国移民提供的韩国语讲座，在那个讲座上见到了四五名被领养韩人。这是马蒂亚斯先生第一次与其他被领养韩人交流的经历。于1986年和他们一起成立了被领养韩人协会。通过口口相传，很多居住在瑞典的被领养韩人加入其中。

同一时期，其他欧洲国家也有很多被领养韩人自助团体，特别是瑞士，韩国派遣的韩国牧师对该团体的成立进行了深入的干预。这是因为当时韩国市民社会认为，为了20世纪90年代初韩国的民主化和全球化，与分散在世界各地的韩人联系非常重要。在这个过程中，发现被领养人是重要的瑞士韩裔被领养人自助团体。此后，与韩国的市民社会团体以非常紧密的联系为基础，于1995年首次为在欧洲的被领养韩人举行了国际会议。这张照片就是那个会议小册子。通过此次活动，分散在欧洲不同国家的被领养人将聚集在一起，并首次见面。

在美国这一时期各地区，也形成了多种自助团体。现在看到的这些就是在各个国家和地区形成的领养人自助团体的标志。这些团体在形成被领养韩人的认同感和共同体意识方面起到了非常重要的作用。通过这个团体被领养人发现其他被领养人，也非常普遍地经历着之前提到的种族歧视或对亲生家庭的好奇，知道了到目前为止还没有表达这种好奇的空间，在这里，更进一步理解了这种特殊经历的根源是国际领养，通过这一点被领养人更积极地将自己规定为被领养韩人。

特别是在这一时期被领养韩人跨越国境以超国家身份认同感打造被领养人身份认同感的重要背景是，20世纪90年代互联网的扩散和海外旅行的普遍化。随着各地的被领养人团体建立网站，更多的被领养人加入了团体。不仅如此，还收集了各个地区的被领养团体并生成了连接全世界被领养韩人的电子邮件列表。通过这个实时分享世界上被领养韩人的消息和信息，通过这一点形成了横跨国境的超国家的被领养韩人共同体意识。1999年，在美国华盛顿举行了首次世界被领养韩人聚会。这将在网上形成的共同体意识实现为现实空间的活动。在此次活动中，将个别自助团体组合在一起的、名为IKAA的组织于2004年成立。而且这个团体每3年在首尔为全世界被领养韩人举行一次活动。最近在2019年举行了活动，该活动约有700多名海外被领养人在首尔聚集。





第10周	国际领养的离散韩人
第5课时	回归的被领养人和韩国社会

本节课结束后，大家可以理解被领养韩人被认为是重要的离散韩人的过程，与韩国政府的全球化战略有关，并可以解释其局限性；可以应用跨国主义，分析回归的被领养人在韩国的社会变革活动。

正如之前在课堂上解释的，海外领养对象儿童是韩国社会家长式的、压缩式的近代化过程中最被冷落的存在。那么，韩国社会完全忘记了被领养韩人的存在吗？不是这样的。海外领养和被领养人的生活，一直被报道在大众媒体上。1991年制作的大众电影《苏珊布林克的阿里郎》就是一个典型的例子。这部电影典型地展现了被领养人在韩国是如何再现的。正如韩国大众媒体在这部电影中所展示的，将通过离散和移居受到伤害的被领养韩人描述成受害者和被动的存在。此外还将被领养人的生活，局限在与养父母的关系或与亲生父母的再相逢等私人领域进行了理解。

在以前的课时中，我们看到了90年代被领养韩人的自助团体成立并活跃。与此同时，同期回到韩国的被领养人的数量也大幅增加。在此次课时中我们将观察被领养韩人与韩国社会实际上形成了哪种关系，以及这对上述被领养人的再现有什么意义。

阅读以下两篇文章，思考一下被领养人在韩国活动之前所观察到的跨国主义。在正式学习之前请看下面给出的句子，想想是不是正确的句子。被领养韩人的回归和在韩国的活动，可以理解为是为了寻找自己血缘的、具有排他性的个人的性质。正确答案是X。

那么，让我再看看关于回归的被领养人的情况吧。为了理解回归的被领养人与韩国政府形成了什么关系，以及在韩国进行了什么活动，首先有必要了解韩国政府对持续半个多世纪的国际领养采取了什么政策和立场。20世纪50年代韩国政府推进将混血儿童送往海外的政策时，是依据父系血统中心主义思维，将儿童送往父亲的国家美国的行为，赋予了海外领养的正当性。

但到了20世纪60年代，被领养人不再是混血儿童，而是非混血儿童。而且随着韩国的儿童被领养到不同的国家，这种论调失去了力量。海外领养被认为是需要隐藏的。为什么被认为是应该隐藏的呢？因为在海外领养的基础上，送出国的政府会被认为不能正确保护本国的儿童。即认为送出国是无能的认识下，特别是分断体制下建设近代国家的韩国政府来说，不仅被单纯的认为是羞愧，而是动摇政府正当性本身的问题。

之前看到的这个图表，是显示韩国领养数据的图表。在这里海外领养在韩国大幅减少了两次，一次是20世纪70年代末，另一次是20世纪80年代末。第一次海外领养减少的背景是20世纪70年代初朝鲜政权公开批评南韩扩大国际领养。70年代初，在世界范围内冷战两极体制是缓和





的局面。但在韩半岛，1972年，“7·4韩朝共同声明”后，韩朝政府都利用了这一点，为了加强本国的权力基础，韩朝关系反而变得僵化。在这种情况下，朝鲜政府积极谴责韩国政府，认为是耻辱的海外领养。

第二次减少的契机是1988年首尔奥运会。当时政府希望通过奥运会宣传新兴发展中国家的形象，而不是过去在战争弊端中挣扎的落后国家的形象。但西方进步媒体报道称，尽管韩国经济增长如此迅猛，但仍在持续扩大海外领养，并指责韩国是儿童出口国。对于这些批评政府，为了减少海外领养而出台了政策。20世纪70年代后期和80年代后期，推出的两项政策都是一致的，即代替海外领养，扩大国内领养。政府政策有很多问题。最根本的问题是，政府的对策不是对韩国的社会福利制度本身进行全面的再定位，改善对未婚妈妈的认识，而是针对已经分离的儿童，想要通过国内领养来解决问题，是善后性措施，治标不治本。也就是说，没有谋求改变导致儿童分离的内部条件，而是在需保护儿童问题持续发生的情况下，收缩海外领养政策。该政策一直是失败的，到今天为止，海外领养还在持续。

20世纪90年代，随着被领养人形成自助团体，访问韩国的情况大幅增加。但当时韩国社会没有预料到，被领养人会以这么多的数量回归。因此韩国完全没有专门支援被领养人的团体或服务。但这一时期，韩国政府重新关注到被领养韩人，其背景是新自由主义的全球化。当时，金泳三政府为顺应世界潮流，将全球化作为国家发展的中心战略。下一届政权金大中政府，为此更积极地吸引了分散在全世界的500多万名海外韩人。在此过程中，20多万名海外被领养韩人将被重新评价。

这是什么意思呢？在那之前，韩国政府认为海外领养是可耻的，应该隐藏起来。但通过成年被领养人的回归，他们不再是孤儿、弃婴、未婚妈妈的儿童，而是被西欧中产阶级家庭收养、接受高等教育长大的、被认为是非常有能力的韩人人才。因此，韩国政府为了将他们收拢为世界离散韩人，提供了访问母国，授予韩国长期滞留资格等多种支援，被领养韩人被韩国政府认为是重要的存在。这是非常重要和巨大的变化。

但韩国政府的政策不是从被领养人的角度，提供他们需要的服务，而是为了全球化的政府目的，支援了被领养人。这是其局限。因此从回归初期开始，被领养人就稍微理解了自己在韩国遇到的困难，并感受到了成立自助团体提供适当服务的必要性。结果1998年被领养人团体GOA'L韩语是海外领养联谊队在首尔成立。刚才说过，被领养人在韩国有长期滞留资格。但20世纪90年代被领养韩人第一次进入韩国时，他们被视为外国人。因此，为了每两年更新签证不得不去海外。为了解决这些问题像GOA'L这样的团体和个别回归的被领养人持续向韩国国会和大众告知了这个问题。结果，1999年制定的《在外同胞法》中被领养韩人被包含为在外同胞，他们获得了长期滞留资格。



现在看的这张照片是这个团体的网站，正在积极提供被领养人认为是韩国最需要的服务。即寻找亲生家庭、心理咨询、韩语授课等服务。通过这一点，被领养韩人，可以在韩国自主创造自己的位置。此外在这种自助团体运动的同时，为了改变海外领养的结构，也存在着进行政治活动的回归的被领养人团体。虽然他们是少数，但从积极介入韩国社会、从为社会变革而努力的角度来看，有必要关注他们的活动。

在各种被领养人的政治活动中，回归的被领养人特别关注未婚妈妈问题。他们认识到韩国社会在取得辉煌的经济发展的同时，还在持续海外领养的背景下，存在对未婚妈妈的偏见和对单亲家庭的支援缺失。因此开展了支援这些人的社会运动。正如之前提到的，他们了解韩国政府没有持续推进原家庭保护原则，并为改变这些做出了努力。他们亲自会见了未婚妈妈，作为被领养人分享了自己的经历，不仅帮助未婚妈妈们掌握了更多的信息，做出关于儿童的决定，还与未婚妈妈人权团体进行联合进行了各种活动。通过学术会议等为改善对未婚妈妈的认识而努力。

另外回归的被领养人中，有不少人为了寻找亲生父母，付出了很大的努力。在这个过程中，领养文件成为一个重要的问题。被领养人为了查看文件而访问领养机构或儿童保育设施时，很多情况下会以泄露个人信息为由限制整个领养文件的查阅。另外，在一些公开的文件中也发现了很多问题。虽然机关实际上存在关于亲生父母的信息，但文件上有遗漏或错误地写上出生年月日或名字等个人信息的情况也很多。这些问题不仅使被领养人很难找到亲生父母，也给个人认同感带来了很大的混乱。因此被领养人将对领养文件的访问规定为被领养人的知情权，并将其规定为人权问题，要求韩国政府对其进行法律保障，并对文件上的问题进行调查，主张海外领养不是单纯要掩盖的历史，而是要面对的历史。

现在看到的是为修改领养特例法举行的政策讨论会的照片。作为这种努力的一个成果，2012年修改了《领养法》。韩国最早制定海外领养法是1961年。这是法律制定50年来，首次制定了反映被领养人声音的法律。该法的意义是韩国领养法首次明确了原家庭保护原则和被领养人的领养信息访问权。





第10周	国际领养的离散韩人
第6课时	作为跨国主义的国际领养

上完这节课，大家可以从世界历史的角度，来解释韩国海外领养的历史，而且可以用跨国主义，来分析被领养韩人的组织化和在韩国的运动。

还记得讲课之初第一次看到的领养家庭的照片吗？这是白人父母领养有色人种儿童的照片。在被领养韩人中，有在韩国进行社会参与运动后再移居到领养国，持续进行领养相关政治活动的情况。因此他们对把国际领养看做是为处于世界艰难环境中的儿童提供帮助的善意行为的既有认识提出了质疑。

作为代表性的例子，让我们一起来看看丹麦的被领养韩人作家简金凯森的作品。这部作品的名字是《安德森》，所以叫“安德森家族”。在这部作品中，凯森设定韩裔美国人夫妇领养丹麦未婚妈妈女性的白人儿童，制作了各种影像和照片作品。通过照片，可以看到作者正在逆转现有领养儿童和养父母之间的种族秩序。这种颠覆，是为了强调在国际领养中儿童从非西方国家到西方国家、从发展中国家到发达国家，只是单向流动的现象。进而通过这部作品，想向收养国展示国际收养是只有西方社会非常富有的个人才能享受的一种特权。因此，非西欧国家的众多贫困家庭、未婚母亲家庭被剥夺了养育儿童的机会。

像这样，今天的被领养韩人跨越国境形成共同体，不仅是韩国为了领养国的社会变革正在进行非常多样的活动。他们的超国家活动，让我们有机会重新思考我们看待社会的既定方式，国民与非国民、原住民与移民、出生国与定居国等二元对立的思考方式。

